

■ 주요 뉴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성 낮게 평가

- ECB 주요 인사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속 정책 방향 시그널 제시 유보
- 프랑스 의회, '26년 예산안 합의 불발. 재정 건전성 관련 우려 부각
-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 지수, 52.9로 전월(51.0)보다 소폭 개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술주 강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이 영향

주가 상승[+0.9%],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3bp]

- 주가: S&P500지수는 AI테마 과열 부담이 일부 완화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제약주 강세 등에 힘입어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BOJ 추가 금리인상 시점 불확실성 속 엔화 약세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03%, 1.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으로 상승
독일은 ECB 금리인하 기대 약화 및 프랑스 재정 건전성 우려에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73.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5.7원. 0.04% 하락). 한국 CDS 하락

		12/19일	12/18일	전일대비			12/19일	12/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33.7	6,774.8	+0.87%	국채 금리 10y	미국	4.15%	4.12%	+3bp
	유럽	587.50	585.35	+0.37%		독일	2.90%	2.85%	+4bp
	중국	3,890.4	3,876.4	+0.36%		영국	4.52%	4.48%	+4bp
	일본	49,507	49,002	+1.03%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020.6	3,994.5	+0.65%		중국	44bp	44bp	-1bp
	달러지수	98.63	98.43	+0.20%	위험 지표	EMBI+	-	274	
환율	유로화	1.1718	1.1722	-0.03%		VIX	15.13	16.87	-10.31%
	엔화	157.59	155.55	-1.29%		WTI유	56.66	56.15	+0.91%
	위안화	7.0410	7.0413	+0.00%	원자재	구리	544.3	538.0	+1.16%
	원화	1,476.3	1,478.3	+0.14%		금	4,342.8	4,332.6	+0.2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성 낮게 평가

-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최근 고용·물가 여건을 감안 시 추가 금리인하가 긴급(urgent)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 물가를 2%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
 - 11월 CPI가 기술적 요인으로 실제보다 낮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 다만, 금번 발표된 고용 및 인플레이 지표는 물가가 2%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냉각(cooling)되고 있다고 평가
- 이에 불구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선호 심리는 최근 일부 회복되는 모습. Goldman Sachs는 대형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절적 요인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포지션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연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주요 인사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속 정책 방향 시그널 제시 유보

- 렌 정책위원, 최근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로존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거나 특정 금리경로를 확정(commit)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현재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하방으로 치우쳐 있으나,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
- 물러 정책위원, 6개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 추측하기는 아직 이르며, 상·하방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
- 카작스 정책위원,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데이터에 기반해 회의별로 판단하고 정책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현 단계에서는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첨언

■ 프랑스 의회, '26년 예산안 합의 불발. 재정 건전성 관련 우려 부각

- 프랑스 의회 내 상하원 각 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26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이월
- 빌레로이 드 갈로 ECB 정책위원,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GDP 대비 5% 이하로

낮추는 데 실패할 경우 시장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평가. 재정 정책을 둘러싼 EU와의 갈등,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헤지펀드 자금 이탈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장 여건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

■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 지수, 52.9로 전월(51.0)보다 소폭 개선. 기대치는 하회

- 전년 동월 대비 약 30% 낮은 수준으로 가계 체감 물가 부담(pocketbook issues) 등이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 BOE 설문, 영국 경기·노동시장 모멘텀 약화 속 추가 금리인하 전망

- 시장 참가자들은 영국 기준금리가 최종 3%로 인하될 확률을 26%로 평가. 기준금리가 3% 이하로 인하될 가능성은 52%로, 9월 조사 당시 38% 대비 크게 증가

■ 콜롬비아 중앙은행, 폐소화 강세 속 기준금리 9.25%로 유지

- 정책위원 7명 중 4명은 동결에 찬성, 2명은 50bp 인하, 1명은 25bp 인하에 각각 투표. 폐소화 강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임금 상승, 폐소화 약세 전환 가능성 등 향후 리스크를 감안하여 동결을 결정

■ ECB 임금 추적지표, 유로존 임금 상승률 내년 하반기 들어 재차 가속 전망

- ECB의 임금 추적지표(wage tracker)에 따르면 '26년 4분기 유로존 임금 상승률은 금년 대비 2.7%로 '26년 3분기(2.5%) 보다 소폭 확대될 전망. '24년 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나, '26년 상반기 상승률 전망치는 상회

■ 사우디 원유 수출, '26년초 크게 확대될 전망.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 재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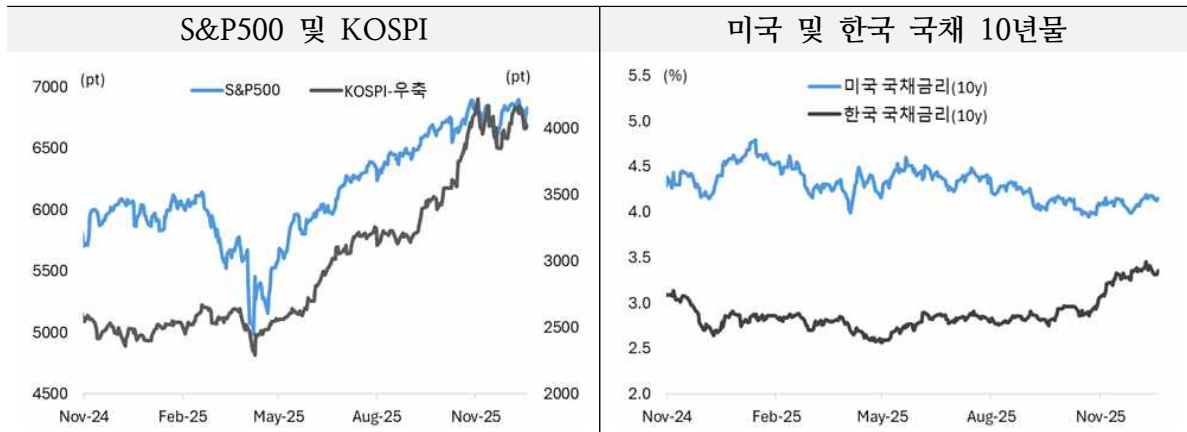
- 다음달 對중국 사우디 원유 선적물량은 약 5천만 배럴로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금년 8월 이후 최대인 일일 약 160만 배럴에 달하는 수준. 한편, 對미국 사우디 원유 선적물량은 11월 일일 50.9만 배럴로 집계되며, 선박추적 업체 OilX는 '26.1월 일일 59.4만 배럴('22년 이후 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2~2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Q 경제성장률(23일, 예상치 QoQ Saar 3.2%), 10월 내구재 수주(23일, 예상치 MoM -1.5%),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23일, 전월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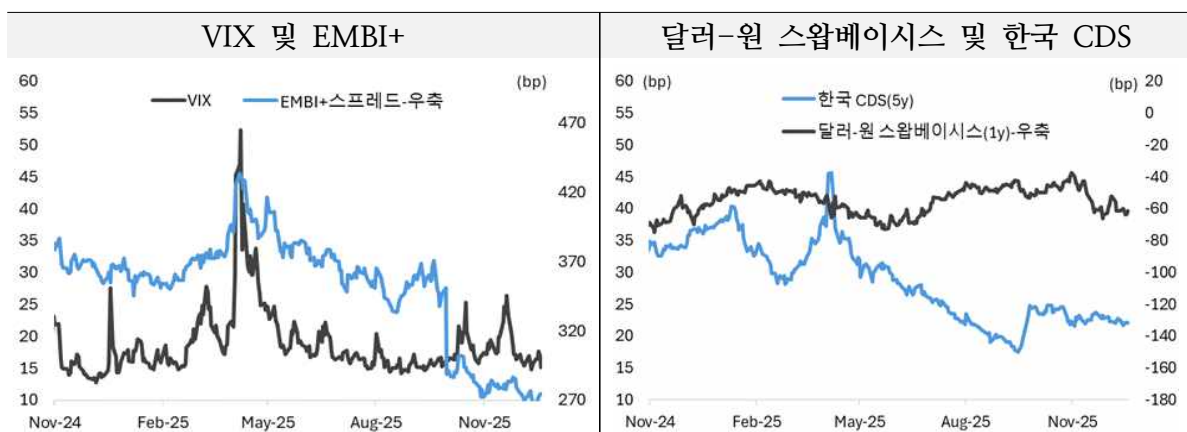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46 E-mail swshin@kcif.or.kr